

월요광장

예학자 고산 윤선도



박석무  
다산연구소 소장·우석대 석좌교수

‘장가(長歌)는 송강 정철, 단가(短歌)는 고산 윤선도’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널리 알려진 말이다. 우리나라 가사(歌辭) 문학에는 장가와 단가가 있는데, ‘관동별곡’ 같은 장가에는 당연히 송강이 으뜸이요, ‘오우가’와 같은 단가에는 고산이 최고봉이라는 뜻이 담긴 말이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구천(九泉)에 뿌리 굵은 줄을 그로 하여야 노라.” ‘오우가’(五友歌) 중 소나무를 읊은 시조이다.

모든 꽃들이 더우면 꽃을 피우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소나무는 더위와 추위도 모르고 사시정철 푸르케만 살아가니, 그것이 좋아서 벗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고산 윤선도(1587~1671)의 지조를 거기에서 알 만하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

리 추위도 일반 식물처럼 변하지 않고, 뿌리를 구천에 내리고 절대로 변치 않는 의기를 지닌 시인이 고산이었다. 고산은 26세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의 신분으로 1616년 격렬한 상소를 올렸다. 광해군 시절의 패악한 시대에 권력을 농단하던 이이첨·박승중·유희분 등 권신들의 횡포를 탄핵한 무서운 상소였다. 규탄을 받은 권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는가. 정철·박인로와 함께 조선 3대 가인(歌人)이던 윤선도는 권력에 쫓겨 함경도의 경원이라는 머나먼 곳으로 귀양을 갔다.

경원에서 유배지를 경상도 바닷가의 기장으로 옮겨 살던 고산은 8년 만인 1623년에야 귀양살이가 풀렸다.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반정이 일어난 덕택이었다. 여러 벼슬이 내렸지만 모두 사양하고 낙향, 고향 해남에서 은거하던 고산은 1628년 42세의 늦은 나이로 과거에 응시하여 보란 듯이 장원급제에 올랐다.

뒷날 효종이 된 봉림대군의 사부가 되었고 제왕학을 제대로 가르쳐 천하에 유명한 임금의 스승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만큼 고산의 학문은 깊고 넓었다. 여러 벼슬을 지냈으나 바른 말과 옳은 행동 때문에 높은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고향에서 의병을 모아 강화도로 진격하다가 화의 소식을 듣고는 낙망하여 고향에 돌아왔다. 이어 다시는 부끄러운 나라에서 벼슬을 앉겠노라고 제주도로 들어가다가 중간의 보길도 경치에 끌려 그곳에서 은거하고 말았다.

격자봉 아래에 부용동을 만들고, 낙서재라는 서당을 짓고, 세연정이라는 천하 절경의 정원을 꾸려 시조를 짓고 읊으며 가인 생활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임금을 호종하지 않고 그냥 낙향했다고 모함하였다. 결국 경상도 영덕으로 귀양을 가서 1년을 지냈다. 뒤에 동부승지·예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으나 마침내 본격적인 당파 싸움에 진입한다. 1659년 효종의 붕어로 대비의 복제(服制)에 다툼이 일어났으니 남인 대표 윤선도와 노론의 대표 송시열의 대결이다. 예학자이던 고산은 세력에 밀려 패하고 73세에 다시 귀양길에 올라 1660년에서 1667년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 삼수라는 극지에서 살아야 했다.

경전(經傳)과 사서(史書)에 밝은 학자요, 예학자이던 그의 뛰어난 학문은 세상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바른 말, 옳은 주장 때문에 그렇게 오랜 귀양살이를 했던 직신(直臣)이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단지 ‘오우가’ ‘산중신곡’ ‘어부사시사’ 등의 뛰어난 시조 시인 입만 알려졌으니, 우리 모두의 공부가 그렇게 짧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아야겠다. 효종의 대군 시절 스승으로 임금의 사부였으며, 효종의 임금 시절 문과에 장원급제한 인물이었으니, 그냥 잊기만 했어도 고관대작에 오를 수 있음은 당연했다. 하지만 옳은 말을 하기 좋아하고, 바른 일에만 열을 올려 불의와 비리에는 촌부의 양보가 없던 그의 기개 때문에 겨우 예조참의라는 벼슬에 그쳤다. 그가 얼마나 끈고 바른 직신이었는지 바로 알게 된다.

고산이 세상을 떠난 뒤인 1675년 마침내 남인들이 세력을 잡을 때야야 이조판서라는 벼슬에 추증되고 충헌(忠憲)이라는 시호가 내려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해남 윤 씨 고산의 가문에서는 참모도 많은 인재가 배출됐다. 3재 화가인 공재 윤두서를 비롯해 낙서 윤덕·청고 윤용 등의 3대(代) 문인화가가 있는가 하면 실학자 정약옹은 바로 공재 윤두서의 외증손이었다. 고산 윤선도의 핏줄은 호남에 의기를 심어 주었고, 학문의 뿌리를 내려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 주었다.

법조칼럼

교회 헌법과 교회의 세습



이철열  
변호사

한국에서 최대 기독교 교단으로 손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교단은 2013년 소위 ‘세습 금지법’을 압도적인 지지율 받아 통과시킨 바 있다.

예장 통합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에 의하면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예장 통합 헌법상 소위 교회 세습이 금지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안타깝게도 위 교회 헌법상의 규정보다 불구하고 교회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에 따르면 한국 교회 세습 현황에 관하여 2018년 5월까지 확인된 세습 교회는 총 364개로서 직접 세습 내지 변칙 세습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물론 여기

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논거들은 참 다양하다. 그중 눈이 가는 대목이 있었는데, 위 세습 금지 조항이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직계 비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 비속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참 순진한 해석인 것 같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외적 해석 뿐만 아니라 체계적, 목적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교회법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교회법의 목적·체계 및 기독교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은퇴한’ 목사의 직계 비속에게는 소위 ‘세습’을 허용하고,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 비속에겐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종교가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웠고 이에 찬성한다. 중

교는 상식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거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상식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기에 높임을 받지만 상식 그 ‘이하’의 것을 내세우며 강요할 때는 추악해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리더들이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그 이상으로 행동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 달라고 ‘교회 세습’ 반대를 외치는 분들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 교회가 교회 헌법을 지켜 사회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정상인가? 당연히 후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자성의 힘을 잃어버린 것일까? 요즘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양상이 너무 안타깝다. 교회는 교회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가 자성의 힘을 키워 사회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을 발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社說

전두환의 ‘5·18 공작부대’ 실체 반드시 밝혀야

1980년 5·18 당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들은 ‘진압 전에 술을 마셨음이 분명하다’는 말도 나왔다.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였는데 이는 과연 누가 만들고 퍼뜨렸을까. 누군가 이를 만들었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광주항쟁이 일어난 지 40년이 다되어서야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엮고제 내놓은 ‘5·18 편년대 정밀 투사’라는 제목의 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자료는 신군부의 공작 작전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전두환(88·옛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편년대’(특수 공작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유행 진압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작 요원들은 시민군 속에 잠입해 과격 시위 선동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일부 극우 세력이 북한군 투입으로 오해했을 수 있는 대목이다.

편년대란 중국에 실존했던 ‘편의공작대’(便衣工作隊)의 줄임말이다. 부대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적지(敵地)에 침투해 첩보 수집과 선동 등 특수 임무를 수

행하는 부대를 지칭한다. 80년 당시 편년대에는 505보안부대, 공수여단, 정보사령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31사단, 중앙정보부,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유언비어는 시민들을 자극하기 위한 편년대의 계략이었다는 것이 기록관의 판단이다. 1979년 부마항쟁 때 ‘전라도 군인이 와서 경상도 사람 다 죽인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5·18 직후 보안 요원들은 시정에 들러 자신들이 퍼뜨린 유언비어가 제대로 유통됐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5·18 당시 전남도청 상황실에 잠입한 편년대 대원이 시민군 행세를 했다 수상이여긴 시민들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5·18기록관은 5·18 당시 전두환으로부터 ‘사태감독관’이라는 밀명을 받은 광주 출신 홍성철 대령이 편년대를 지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출몰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는 광주에 머무르면서 온갖 공작을 추진했던 홍 대령의 행적을 낱알이 추적하는 한편 편년대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도 공동 대응 절실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놓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아직 한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추가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에는 추가 이전 기관 분류와 이전 지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추가 이전 공공기관은 122개다. 여기에 정부 출자·투자 회사까지 합치면 500개 이상으로, 이주 인원이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 가능한 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포함해 정부가 신설할 계획인 해양환경공단, 한

국어촌어항협회 등 21개기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 이전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타 시도는 벌써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북은 지난해 10월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충북은 관련 토론회를 열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고 있다지만 당초 기대했던 공동보조를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06년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해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을 유치한 바 있다. 시도는 다시 상상과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성과를 내고 이를 혁신도시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수년 전 방영됐던 개그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감수성(城)’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코너는 인간의 보편적 기질인 감수성(感性性)을 소재로 했다. 생포한 적장에게 사약을 먹이는 장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변방의 오랑캐 장수가 고향에 두고 온 노모와 처자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감수성(城) 장수들은 차마 사약을 먹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순간 감정선을 자극하는 슬픈 음악이 흘러

성’을 뜻하는 말인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재판에서 나온 용어다. 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넓게는 일상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정년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설총 민주당 최고위원이 문 대통령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은 이항에 두고 온 노모와 처자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감수성(城) 장수들은 차마 사약을 먹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순간 감정선을 자극하는 슬픈 음악이 흘러

감수성

나오고 방정석들은 폭소를 터트린다. 사전적 의미의 감수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일컫는다.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 감정 이입이 좋다는 뜻이다. 감수성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격 감수성, 성(性) 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생태 감수성 등 실현해야 하는 공감 능력 또한 적잖다. 그중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바 있다. ‘성 차별적 요소를 인식하는 민감

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기본 자질인 ‘역사 인지 감수성’ 결여라는 후폭풍에 나옴과 방정석들은 폭소를 터트린다. 사전적 의미의 감수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일컫는다.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 감정 이입이 좋다는 뜻이다. 감수성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격 감수성, 성(性) 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생태 감수성 등 실현해야 하는 공감 능력 또한 적잖다. 그중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바 있다. ‘성 차별적 요소를 인식하는 민감

기고

영화 ‘극한 직업’과 가성비



박안수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또한 신치용 전전 국가 대표 선수촌장도 새벽 5시 50분에서 6시에 훈련하러 나오는 국가 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를 보며 극한 직업의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고 힘이 많이 드는데 비하여 그에 걸맞은 처우나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 ‘극한 직업’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은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고, 당직과 잠복 근무 등으로 승진 시험을 준비할 시간적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근무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요즘 젊은 경찰관들에게 형사 업무는 기피 대상의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화 ‘극한 직업’의 제작비는 약 65억 원 가량, 홍보 마케팅

비용 등 25억 원을 합해 총 투자액은 9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누적 관객수는 1600만 명을 돌파하였고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임진왜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명량’으로 1761만 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투자액 대비 수익률, 즉 가성비가 가장 높았던 영화는 ‘7번방의 선물’로 1498%를 달성하였는데 ‘극한 직업’이 이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덕택에 영화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극한 직업’은 어떻게 가성비와 가시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먼저 가족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코믹 장르의 영화라는 점을 짚을 수 있겠다. 역설적으로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률과 장기 실업자의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

록하고 있는 실업 급여 등이 흥행에 불을 지켰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는 답답하기만 하고 경제 성장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느낄 수 없는 지경이다. 영화는 웃을 일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한 번쯤은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영화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탄한 각본과 훌륭한 캐릭터, 적절한 오락성이 가미되었다고 평가한다.

우리 지역에도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장흥 정남진 시네마’를 시작으로 고흥·진도·완도·곡성·화순 등 작은 영화관에서 6000~6500원의 관람료를 내면 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그곳에서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는 소확행(小確幸)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